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과 그 내용

문치웅·김은진*

- | | |
|-----------------------|-----------------------|
| I. 서론 | IV. 전제(田制)와 세제(稅制) 정비 |
| II. 치수의 개념적 이해 | V. 오복제도(五服制度)의 체계화 |
| III. 수리사업과 구주 행정구역 개편 | VI. 결론 |

I. 서론

인류의 정착 생활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계 4대 문명으로 불리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이 모두 黃河와 長江,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나일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으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사람들의 집단생활을 위한 환경은 기본적으로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에 대한 교통, 행정, 정치, 조세 등의 사회적 기반 및 제도적 장치들이 단

계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주거 및 농경에서 필수적인 물 문제는 크게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측면과 수해로 인한 재난관리 측면의 관점에서 관리되어 왔다. 물에 의한 피해의 복구체계 및 예방책 마련, 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수리 시설의 정비와 관개시설의 건설로 발전하면서 물과 관련된 활동은 관개·운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치수(治水)라 하며, ‘물을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사마천이 저술한 『史記』 「夏本紀」에는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대홍수(deluge)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치수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다.¹⁾ 따라서 치수는 기본적으로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사를 통해 볼 때 이미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고대사 관련 사료들 중에서 치수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書經』 「禹貢」이 있으며, 『史記』 「夏本紀」는 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다. 「禹貢」은 치수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알려진 우(禹)가 행한 치수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록으로, 치수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적인 성격이 강하다. 「夏本紀」에서는 「禹貢」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에 대한 내용과 실무책임자인 우의 공적, 더 나아가 우 및 당시 지도자들간의 대화를 통해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前漢書』 「地理志」에서도 앞의 두 문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치수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언급하였다.

이들 문헌에서 고대의 치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홍수에 의

1) 司馬遷, 『史記』 「卷二 夏本紀」,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明胡廣等撰).

한 피해 복구와 피해 예방을 위한 관개, 수리사업과 같은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書經』, 『史記』, 『漢書』에 기술된 치수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물관리(water management) 또는 수리사업(water resource management project)과 관련한 것들은 치수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수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들의 정착생활을 위한 환경조성과 원활한 통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도로 및 하천과 강을 이용한 교통 체계(transportation system)의 정비, 토지등급제(land grading),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 및 특산물 재배 구조의 확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부과 체계(tax system) 제정 등이 있다. 또한 통치 및 관리 정책으로 중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어 관리 통제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졌다.

따라서 고대국가 형성기에 이루어진 치수의 개념은 단순히 물관리라는 일차원적인 문자적 해석의 개념을 넘어 국책사업적 관점에서 바르게 살펴보고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치수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치수를 다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치수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물관리라고만 보는 단편적인 인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수를 신화적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²⁾³⁾ 책임자로서 우가 보인 행동과 자세

2) 周延良, 「鯀禹治水神話的文化結構」, 『天津師大學報』, 第6期, 1998年.; 王炎, 「大禹神話的現代解讀」, 『巴蜀文化』, 第4期, 2010年.; 王青, 「鯀禹治水傳說新探」,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第3期 2003年 9月.; 施筱萌, 「鯀禹治水神話的結構分析」, 『青年文學家』, 2012年.; 楊棟, 「禹平水土傳說新解 - 從‘敷土’到‘治水’傳說的演變」, 『古籍整理研究學刊』, 第1期, 2012年 1月.

3) 劉震, 「‘大禹治水’神話的真相」, 『大科技』, 2007年.; 任玉貴, 「大禹治水 - 歷史與現實的面面觀」, 『中國土族』, 2012年 夏季.; 吳文祥·葛全勝, 「夏朝前夕洪水發生的可能性及大禹治水真相」, 『第四紀研究』, 第25卷 第6期, 2005年 11

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⁴⁾⁵⁾⁶⁾ 또한 치수 사업이 행해진 영역 문제를 다룬 연구 결과들과,⁷⁾⁸⁾⁹⁾¹⁰⁾ 당시의 문화를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다.¹¹⁾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적인 거리감과 참고 가능한 자료의 한계성, 그리고 기록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고고학적 사료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에 의한 치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방면의 시도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치수 사업의 본질적 이해와 이 사업을 통한 결과물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정착 문명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추세를 보면, 대체로 문명의 개념과 특징, 중국 문명 형성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주요 지역에서의 문명 형성과정,

月.

-
- 4) 王建軍·張愛民, 「洪水神話·與考古發現的對應試證」, 『平頂山師專學報』, 第17卷第3期, 2002年 6月.; 侯仰軍, 「考古發現與大禹治水真相」, 『古籍整理研究學刊』, 第2期, 2008年 3月.; 楊偉微, 「出土文物與緜禹治水傳說」, 『文物鑑定與鑑賞』, 2011-12.; 李民, 「《禹貢》中的環渤海地區及其物質文明」, 『人文學論叢』, 第14권 1호, 2009年 2月.
 - 5) 徐校雄, 「大禹治水對社會發展的影響」, 『雲夢學刊』, 第1期, 1997年.
 - 6) 賈兵強, 「大禹治水精神及其現實意義」,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社科版)』, 第27卷 第4期, 2011年 8月.
 - 7) 王清, 「大禹治水的地理背景」, 『中原文物』, 第1期, 1999年.
 - 8) 楊善群, 「大禹治水地域與作用探論」, 『學術月刊』, 2002年 10月.
 - 9) 梁述杰·雷太寶, 「大禹在汾河流域治水的歷史考證」, 『人民黃河』, 第22卷 第12期, 2000年 12月.
 - 10) 王純五, 「大禹治水的地域, 《禹貢》江沱及成都古城址」, 『四川文物』, 1999年 2月.
 - 11) 党明德, 「城子崖龍山文化遺址的發掘和兩漢濟南城的西遷」, 『濟南職業學院學報』, 第4期, 2005年 8月.; 張應橋, 「我國史前人類治水的考古學證明」, 『中原文物』, 第3期, 2005年.; 石明秀, 「先秦兩漢治水實踐及思想探蹟」,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科學版)』, 第23卷 第5期, 2007年 10月.; 王震中, 「大舜文化與中華早期文明」, 『南方文物』, 第1期, 2011年.; 蔡鳳書, 「大舜與龍山文化」, 『濟南教育學院學報』, 第6期, 2002年.; 錢耀鵬, 「堯舜禪讓故事的考古學研究」, 『中原文物』, 第4期, 2002年.

출토된 유물, 유적을 통해 알게 된 활동 중심지, 주거터, 제방시설, 도자기 등으로 대표되는 제반 문명요소의 발생과 발전 형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요 발견 유물과 유적들의 연대는 대략 B.C. 2500 ~ B.C. 2000년 전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²⁾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이 치수사업의 이루어진 지역적 범위 내에 속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書經』의 「禹貢」과 『史記』의 「夏本紀」 등의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치수 사업에 대한 역사적 증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치수 연구의 중요성은 동아시아 고대국가 초기의 국가적 차원의 대사업으로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적 상황, 정치, 문화, 기술,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치수는 시대적으로는 고조선 건국 초기의 시기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는 천명(天命)에 의해 다스려지며 천하(天下)라 불린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황하를 비롯한 주요 하천과 산,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대사업이다. 천하의 지역을 9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구주(九州)로 한 것은 치수사업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요(堯), 순(舜), 우(禹), 고요, 후직(后稷)과 같은 당시의 주요 인물들의 활동이 문헌에 등장하며, 이때에 단군왕검의 아들인 태자 부루(夫[扶]婁)를 창해사자(滄海使者)로 임명하고 치수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도산(塗山)에 가서 우와 회동하였다는 언급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기록되어 있다.¹³⁾ 그러므로 치수

12) 党明德, 「城子崖龍山文化遺址的發掘和兩漢濟南城的西遷」, 『濟南職業學院學報』, 第4期, 2005年 8月.; 張應橋, 「我國史前人類治水的考古學證明」, 『中原文物』, 第3期, 2005年.; 石明秀, 「先秦兩漢治水實踐及思想探蹟」, 『華北水利水电學院學報(科學版)』, 第23卷 第5期, 10月, 2007年.; 王震中, 「大舜文化與中華早期文明」, 『南方文物』, 第1期, 2011年.; 蔡鳳書, 「大舜與龍山文化」, 『濟南教育學院學報』, 第6期, 2002年.; 錢耀鵬, 「堯舜禪讓故事的考古學研究」, 『中原文物』, 第4期, 2000年.

13)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pp. 57-58.

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고조선 건국 초기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기의 지역적 관계, 역사, 문화, 기술,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天의 명령(天命)에 의해 천하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2년에 걸쳐 펼쳐진 치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그 내용, 수행 과정과 결과물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 물관리 차원으로 정의되었던 치수에 대한 문자 해석적 개념을 넘어 체계적인 행정구역 개편, 제도정비, 교통망 체계 구축, 조세제도 마련을 포함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의 치수의 실체와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치수의 개념적 이해

치수를 물관리라고 하는 것은 ‘치(治)’와 ‘수(水)’에 대한 단순한 문자적 해석을 따른 것이다. 또한 치수와 관련한 내용 고찰에서도 기본적으로 물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대국가 형성기의 치수 개념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와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된 치수의 의미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문자학적인 의미의 변천 측면에서 치수가 가지는 원래 의미가 크게 축소된 경우이다. 어떤 하나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 축소, 또는 전이(轉移)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치수를 단순히 물관리라 하는 것은 치수사업의 한 단면만을 보고 나타난 것이다. 치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康熙字典》에서 두 글자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다. 治에 대한 주요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水名也	【說文】水，出東萊曲城陽丘山 南入海 【前漢書 地理志】泰山郡南武陽冠石山 治水所出 南至下 丕入泗 【前漢書 地理志】鴈門郡陰館累頭山 治水所出 東至泉州 入海
理也	【周禮 天官】大宰以九職任萬民 七日嬪婦 化治絲枲 【荀子 修身篇】少而理曰治
監督也	【周禮 地官 鄉師】用役則帥其民而至 遂治之
所都之處	【前漢 田儋傳】更王膠東 治即墨. <註> 謂都之也
州郡所駐	如蜀刺史曰治成都, 揚刺史曰治會稽

또한, 水에 대한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

準	【說文】準也 北方之行 象衆水從流 中有微陽之氣也 【徐鉉曰】衆屈爲水 至柔 能攻堅 故水其內也 【釋名】水 準也 準平物也 【白虎通】水位在北方者 北方者 陰氣 在黃泉之下 任養萬 物 水之爲言濡也
五行之一	【書 洪範】五行一曰水. 五行者水火木金土
地之血氣	【管子 水地篇】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
大水	【十八史略】五帝堯立七十年有九年之水
官名	【左傳 昭十七年】共工氏以水紀 故爲水師而水名

治의 주요 의미는 치수, 다스리다. 감독, 도읍 이름, 고을 등이 있다. 여기서 치수를 물관리라고 한 것은 治의 대표적이 의미인 ‘理(다스리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治는 하천의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說文』과 『前漢書』의 「地理志」예문을 통해서 볼 때 治라는 이름을 가진 하천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說文』의 기록을 보면 동래군 곡성(東萊郡 曲城)에 있던 양구산(陽丘山)에서도 치수가 나와서는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또한 『前漢書』 「地理志」에서는 태산군(泰山郡)에 있던 24개의 縣 중 남무양현(南武陽縣)

에 있는 관석산(冠石山)에서 치수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안문군 음관(鴈門郡 陰館)에 있는 누두산(累頭山)에서 치수가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천주(泉州)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천이름으로서의 치수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水는 고른 또는 평평한(準)의 의미와 오행의 첫 번째, 물(地之血氣), 대홍수(大水), 관명(官名) 등의 의미로도 쓰인다. 치수를 물관리라 한 것은 水를 ‘地之血氣(물)’의 의미로 본 것이다. 또한 『十八史略』에서 “오제 가운데 요가 즉위한지 70년에 홍수가 있었다(五帝堯立七十年有九年之水)”라 한 것은 大水 즉, 대홍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대와 상고시대의 기록에서 水는 오행(五行)의 하나인 ‘북방위’의 의미로 주로 쓰였다. 오행은 水, 火, 木, 金, 土로 다섯 方位를 뜻하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水는 북방위, 火는 남방위, 木은 동방위, 金은 서방위, 土는 중앙을 나타낸다.¹⁴⁾ 이러한 오행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책임자인 오제(五帝)가 만들어졌으며, 이 오제는 고대국가 형성 이후 오관(五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淮南子』 「天文訓」편에서는 오행 지역의 책임자인 오관에 대하여 동방(東方)을 담당하는 자를 전(田), 南方을 담당하는 자를 사마(司馬), 西方을 담당하는 자를 리(理), 北方을 담당하는 자를 사공(司空), 中央을 담당하는 자를 도(都)라고 한 기록도 있다.¹⁵⁾ 오행, 오방, 오관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4) “何謂五官東方爲田南方爲司馬西方爲理北方爲司空中央爲都”，漢 高誘 注，【淮南鴻烈解 卷三 天文訓】

15) “何謂五官東方爲田南方爲司馬西方爲理北方爲司空中央爲都”，『淮南鴻烈解 卷三，天文訓』

〈표 1〉 五行 - 五方 - 五官의 관계

五行	五方	五官
水	北方	司空
火	南方	司馬
木	東方	田
金	西方	理
土	中央	都

우가 치수사업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을 때 天으로부터 받은 관직이 사공이었다. 이 사공의 관직은 水 지역, 즉 북방지역의 책임자이다. 이러한 상황적 분석을 통해 보면 치수에서 水의 의미를 단지 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문자적 해석에 한정된 것이다.

치수를 직접적인 수리사업의 범위로 인식한 것으로서는 『史記 卷二十九 河渠書』의 “鄭國能治水故曰水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¹⁶⁾ 이 내용은 “鄭國이 능히 치수를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일러 수공(水工)이라 한다.”이다. 여기서 수공은 수리사업을 의미하며, 치수를 물과 관련한 수리사업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치수의 사업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는 『宋史 卷一百六十五, 職官志 職官五 都水監』에 “凡治水之法以防止水以溝蕩水以澮寫水以陂池瀦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릇 치수하는 방법은 막아서 물을 멎게 하고, 도랑을 내어 물을 흐르게 하고, 받고랑을 내어서 물을 끌어대고, 방죽과 못으로써 물을 모아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여기에서 치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갖춘 수리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書經』 「禹貢」과 『史記』 「夏本紀」에서 정리된 고대국가 형성기에 이루어진 치수사업은 앞에서 설명된 수리사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세부 사업들을 포함한다. 황하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지역별로 하천

16) 『史記 卷十九 河渠書』

17) 『宋史 卷一百六十五 職官志 職官五 都水監』

과 산을 이용해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행정 구역을 기주(冀州), 연주(兗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의 9개로 나누어 구주(九州)로 하였다. 지역별 토지, 임야, 산의 분포 정도와 비옥도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산물(産物)을 재배, 생산하도록 하였다. 세금 부과도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제도화하였으며, 중앙 정부에 바치는 특산품도 지역 특색에 맞게 결정되었다. 또한 지역간 수로를 이용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통치행위를 위한 체계적인 오복제도까지 완성되었다.

이처럼 고대국가 형성시기에 이루어진 치수는 체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업명(事業名)인 것이다. 이 사업은 天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천하의 지역을 개척, 개편하여 사람들의 주요 활동 터전을 마련한 것이 주 내용이며, 22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중중지에서 변방 지역까지 통치력이 원활하게 미치도록 하는 통치기계(統治機制)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치수는 바로 그 통치 기계의 운용을 위해 수행된 국책사업이다.

Ⅲ. 수리사업과 九州 행정구역 개편

우가 치수의 책임자가 된 배경은 전임 책임자였던 그의 아버지의 실적 부진과 연관이 있다. 『書經』 「禹貢」, 『史記』 「夏本紀」, 『前漢書』 「地理志」에 상세하게 그 내용이 전해진다.

치수사업의 배경은 천과 천하에서 수년간 계속된 대홍수(鴻水)이다. 이로 인해 주요 삶의 터전은 황폐화되고 국가 경제의 근본을 이

루던 넓은 평원들도 사라져 버려 새로운 생산지를 포함한 생활의 터전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 시기에 천하는 천명으로 堯가 주도가 되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명으로 요는 천하의 대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책임자로 곤(鯀)이라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곤은 책임을 맡아 9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공적이라 할 만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요의 뒤를 이어 치수사업의 감독관이 된 순(舜)은 그를 파면시키고 곤의 아들인 우를 사공(司空)으로 임명하여 부친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이어서 하도록 하였다. 우는 아버지의 일을 교훈삼아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하였는데, 13년간을 바깥에서 살면서 일에만 몰두하여 집 근처를 지나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에 전념했다고 한다.¹⁸⁾

이러한 『書經』의「禹貢」편과, 『史記』「夏本紀」의 내용을 볼 때, 이 대규모 사업은 단순히 홍수로 인한 피해 수습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天 지역의 막대한 피해와 육지를 덮은 대수(大水)의 범람으로 새로운 경제와 생활의 터전을 정비하여 새롭게 행정 구역을 만드는 대사업인 것이다. 사업 수행의 우선은 물의 활용에 있다. 사람들의 안정된 정착생활과 농경을 위한 측면과 수해로 인한 재난관리 측면의 관점에서 관리되었다. 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수리 시설의 정비와 관개시설의 건설, 하천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제방을 세우고 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하천의 상황과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에 최대한 인공의 힘을 가하지 않고 물의 흐름을 원

18) 當帝堯之時鴻水滔天浩懷山襄陵下民其憂堯求能治水者羣臣四嶽皆曰鯀可堯曰鯀爲人負命毀族不可四嶽曰等之未有賢於鯀者願帝試之於是堯聽四嶽用鯀治水九年而水不息功用不成於是帝堯乃求人更得舜舜登用攝行天子之政巡狩行視鯀之治水無狀乃殛鯀於羽山以死天下皆以舜之誅爲是於是舜舉鯀子禹而使績鯀之業堯崩帝舜問四嶽曰有能成美堯之事者使居官皆曰伯禹爲司空可成美堯之功 … 禹傷先人父鯀功之不成受誅乃勞身焦思居外十三年過家門不敢入

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의 형세에 따라 물길을 터서 구하(九河)가 사해(四海)로 흐르게 하고, 농경지 주위에 파낸 밭고랑과 밭도랑이 하천과 통하게 함으로써 물 공급(給水)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하천 정비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 흐르던 황하(黃河), 장강(長江), 회수(淮水) 등의 큰 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각각의 작은 支流들이 흐르다가 위의 큰 하천들과 합쳐졌다. 이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지방 곳곳에 이르는 하천과 도로가 연결되었다.

치수사업이 수행된 지역을 주요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여 아홉 개로 구분하여 구주라 하였다. 치수 사업의 시작은 요의 주 활동 무대로 알려진 기주(冀州)에서 시작되었다. 기주는 天地의 중간이자, 삼면이 황하와 접해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우는 치수 사업의 순서를 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황하의 下流인 연주(兗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그리고 황하가 시작되는 곳인 옹주(雍州)를 가장 마지막으로 하였다.

각주에 대한 주요 사업 수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주(冀州)에서는 호구산(壺口山)에서 양산(梁山)과 기산(岐山), 鎭山인 태악(太岳), 악양(岳陽)으로 이어지는 산세(山勢)를 따라 이동하면서 길을 만들었다. 형수(衡水)와 장수(漳水)의 범람을 수습하니, 항수(恒水) 및 위수(衛水)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고, 담회(覃懷), 대륙(大陸)과 같은 평지가 정리되어 농경이 가능해졌다.

다음 지역은 연주(兗州)이다. 연주는 동남쪽으로는 제수(濟水), 서북쪽으로는 황하에 접하는 황하의 하류 지역이다. 이곳을 지나는 물의 여울이 거칠어 충돌하는 정도가 심했고, 흩이 거칠었지만 땅이 평평해서 황하가 범람하면 그 피해가 특히 심했기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우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제수와 더불어

어 구하의 흐름이 정리되고, 뇌하(雷夏)에는 많은 물이 모이고 고여서 못(澤)이 되었는데, 웅수(滙水)와 저수(沮水)가 모여서 이 뇌하로 합쳐졌다.

연주에 이어서 청주(靑州) 지역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청주는 동북쪽으로는 바다에, 서남쪽으로는 대산(岱山[泰山])과 닿는 곳이다. 원래 있었던 유수(滙水)와 치수(淄水)를 예전부터 흐르던 길을 따라서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도 될 정도로 강의 흐름이 완만했고, 지형도 평탄했기에 가장 쉽게 공사가 진행된 지역이었다.

청주 다음은 서주(徐州)이다. 서주는 동쪽으로는 바다에, 남쪽으로는 회수(淮水), 북쪽으로는 대산에 이르는 지역이다. 회수와 기수(沂水)의 흐름이 정리되니 몽산(蒙山)과 우산(羽山)에다가 파종을 해서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야(大野)에는 물이 고여 못(澤)이 되었으며, 동원(東原)은 수해가 수습되고 평탄하게 되면서 농경이 가능해졌다.

서주 다음 지역은 북쪽으로 회수에 접하고, 동남쪽으로는 바다와 닿아있는 양주(揚州) 지역이다. 많은 물이 모이고 괴어 만들어진 팽려택(彭蠡澤)에서는 해를 따라서 움직이던 새와 기러기(陽鳥)들이 머물러 지내기도 하였다.三江이 각각 흐르다가 합쳐져서는 진택(震澤[太湖])이 되었다.

서주 다음은 형주(荊州)이다. 형주는 북쪽으로는 형산(荊山)에 닿고, 남쪽으로는 형산(衡山)의 남쪽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곳을 지나가는 장강(長江)과 한수(漢水)의 물길은 막히거나 비켜가는 곳이 없이 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흘러 들어갔는데, 마치 諸侯들이天子를 알현하러 바쁘게 가는 모양과 같았다고 하였다. 여러 물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九江(洞庭)에는 물이 풍부하였으며, 장강의 지류인 타수(沱水)와 잠수(潛水)도 형성된 물길을 따라 순탄하게 흘렀다. 운택(雲澤)과 몽택(蒙澤)은 수위가 낮아진 후 경작이 가능할 정도로 정리되었다.

형주에 이어 형산(荊山)과 황하 사이에 위치한 예주(豫州)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예주를 지나며 흐르던 이수(伊水), 낙수(洛水), 전수(澗水), 간수(澗水)가 황하로 들어갔고, 형수(滎水)와 파수(波水)가 흐르다가 넘친 물은 고여서 못이 되었으며, 하택(荷澤)으로 들어가는 물이 넘치면 그 나머지 흐름들은 맹저택(孟豬澤)으로 들어가도록 정리되었다.

예주에 이은 사업 구간은 양주(梁州)이다. 양주는 동쪽으로는 華山(太華/西岳)의 남쪽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흑수(黑水)에 닿는 지역이다. 양주에서 발원하는 장강과 한수가 순탄하게 흐르자 발원지에 있었던 민산(岷山)과 파산(岷山)에서는 가히 초목이나 곡식을 심어서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장강의 지류인 타수(沱水)와 한수의 지류인 잠수(潛水)가 흘러가면서 길을 만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이루었다. 채산(蔡山)과 몽산(蒙山)에서는 작업을 다 끝내고 여제(旅祭)를 지내며 治理가 완성되었음을 알렸고, 화이(和夷)라는 지역도 크게 정리되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의 마지막 지역 옹주(雍州)는 서쪽으로는 흑수에 닿고, 동쪽으로는 서하(西河)에 이르는 지역이다. 서쪽으로 약수(弱水)가 흐르고 경수(涇水)는 위수(渭水), 예수(泔水)와 이어지거나 합쳐져 흘렀다. 칠수(漆水)와 저수(沮水)도 따라서 흐르다 渭水로 합쳐졌고, 풍수(澧水) 또한 위수로 합쳐졌다고 하였다. 형산(荊山)과 기산(岐山)에서 사업의 완수를 알리는 旅祭를 지냈으며, 종남산(終南山), 돈물산(惇物山)을 거쳐 조서산(鳥鼠山)에 이르는 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며 평원과 습지, 방죽과 못을 모두 정돈하였다. 이에 따라 서북쪽의 삼위산(三危山) 일대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변방인 삼묘(三苗)까지 그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구주의 행정구역 개편은 치수사업 핵심 내용중의 하나이다. 치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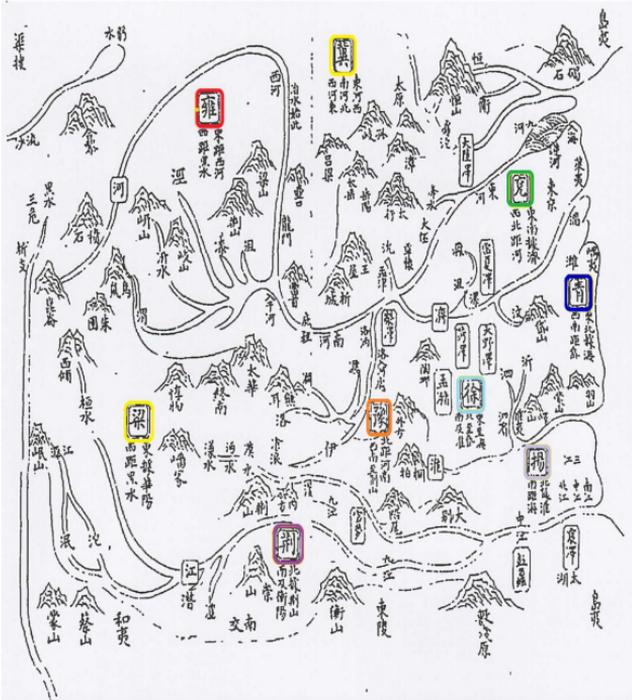
업을 통해 재편된 구주의 중심 산과 하천, 그리고 주요 지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九州의 주요 산과 하천, 지명

州名	주요 산	주요 하천	기타
冀州	호구산(壺口山)·양산(梁山) ·기산(岐山)·태악(太岳) ·약양(岳陽)	형수(衡水)·장수(漳水)·항수(恒水)·위수(衛水)	담회(覃懷)·대륙(大陸)
兗州		濟水 및 九河 뇌하(雷夏)·옹수(灑水)·저수(沮水)	
靑州	대산(岱山[泰山])	유수(濰水)·치수(淄水)	
徐州	몽산(蒙山)·우산(羽山)	회수(淮水)·기수(沂水)	대야(大野澤)·동원(東原)
揚州		淮水	팽려(彭蠡)·진택(震澤太湖)
荊州	형산(荊山)과 형산(衡山)	九江(洞庭)·타수(沱水)·잠수(潛水)	운택(雲澤)·몽택(蒙澤)
豫州		이수(伊水)·낙수(洛水)·전수(澗水)·간수(澗水)·형수(滎水)와 파수(波水)·하수(荷水)	맹저(孟豬)
梁州	華山(太華/西岳)·민산(岷山)·파산(嶓山)·채산(蔡山)·몽산(蒙山)	長江과 漢水가 발원 타수(沱水)·잠수(潛水)	하이(和夷)
雍州	형산(荊山)과 기산(岐山) 종남산(終南山)·돈물산(惇物山)·조서산(鳥鼠山)·삼위산(三危山)	흑수(黑水)·서하(西河)·약수(弱水)·경수(涇水)·위수(渭水)·예수(洎水)·칠수(漆水)·저수(沮水) 풍수(澧水)	삼묘(三苗)

이렇게 정리된 구주의 산에는 통도(通道)가 생기고, 구주의 하천에서는 물이 순탄하게 흐르게 되었으며, 구주의 못(澤)에는 방죽을 쌓아 물결이 터져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물줄기들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또는 돌아가거나 나가는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상 교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구주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이 집단 정착 생활을 위한 환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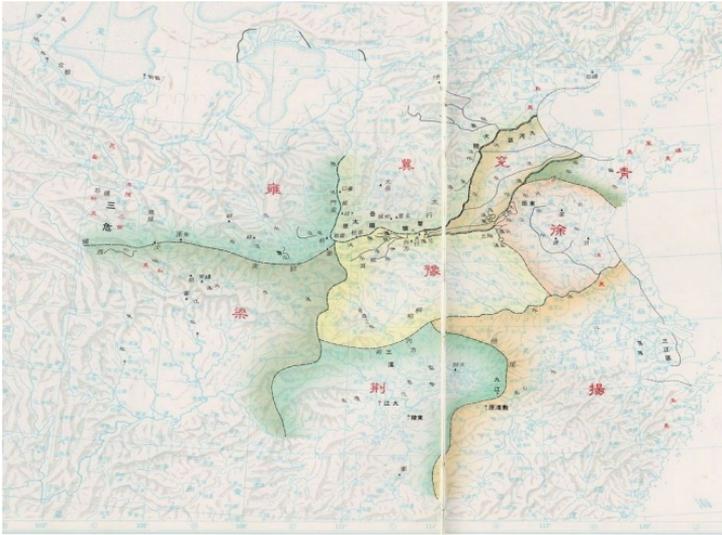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편된 구주 행정구역의 모습을 당시의 지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¹⁹⁾



(그림 1) 禹의九州圖

<그림 1>을 통해 구주의 대략적인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장강과 황하 사이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구주 개편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정착생활을 위한 터전 조성과 천하의 원활한 관리 및 통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의 구주의 위치를 오늘날의 지도를 통해 보면 <그림 2>와 같다.²⁰⁾

19) “禹貢所載隨山濬川之圖”, 『書經大全卷三 夏書 禹貢』, 明 胡廣等 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20) “禹貢九州圖”, 『中國歷史地圖』, 張其昀 監修, 程光裕·徐聖謨 主編, 中國文化大學出版部印行, 中華民國六十九年(198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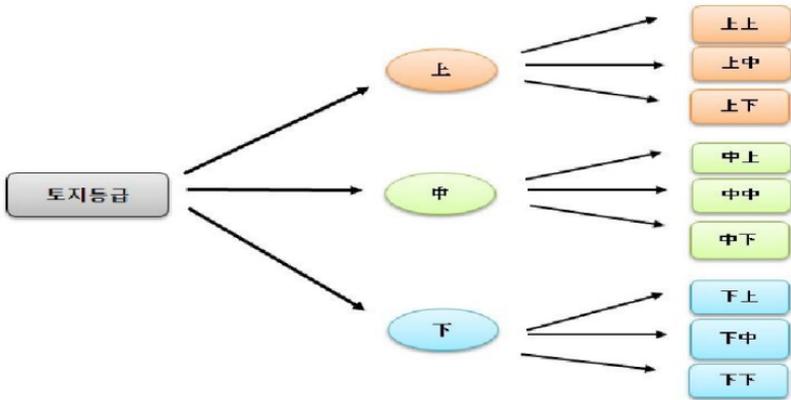


〈그림 2〉 현재의 中國 지도 상에 나타난 九州

IV. 田制와 稅制 정비

치수 사업을 통해 천하의 중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구주로 개편 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들도 상세하게 조사, 분류되어 정치와 경제적 목적에 활용하게 되었다. 지역별로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위한 환경이 정비되었다. 1차적인 대상은 토지이다.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경작용 터(場), 채소를 심는 밭(圃), 과일 꽃과 나무를 심는 곳(園), 옷나무 숲(漆林) 등으로 구분, 정리되었다. 밭에서는 지역별 적합한 곡식과 쌀이 생산되었으며, 兵車와 같은 세금(賦)으로 거들만한 것들과 공물이라 할 만한 것들이 정해져 공급되었다. 각 지역의 토지는 토질을 기준으로 그 땅이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를 조사, 비교하여 9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 등급의 구분은 <그림 3>에서 정리된 것처럼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의

9 등급이다.



〈그림 3〉 토지등급도

또한 토지 등급제에 맞춰 세금 부과체제도 마련되었다. 각 주에서 한 해 동안의 생산물의 총량이 전체 구주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정도와 인구밀도, 그리고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그림 3>의 토지등급제와 같은 9 등급의 세금부과 체계가 만들어졌다.

천의 주도에 의해 우를 실무책임자로 하여 이루어진 천하의 행정 구역이 개편되고 토지의 평가기준과 지역별 세금 부과체계가 만들어져 고대국가 초기의 통치와 국가경제 기반 구축, 사회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치수사업의 중심으로 삼았던 기주를 보면, 토지의 등급은 5 등급에 해당되는 中中으로 중간 정도에 속한다. 반면에 지역이 넓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던 이유로 세금의 등급은 첫 번째인 上上の 1등급으로 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제는 연도별 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작황이 좋지 않아 정해진 등급의 세금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정황을 참작하여 다음 등급의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해안가에 살던 夷人(島夷)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바쳤는데, 갈석(碣石) 부근에

서 바닷가를 따라오다가 황하를 거슬러 올라와서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기주에 집결된 물품들은 황하와 연결된 물길을 통해 집결지로 보내졌다.

다음 지역인 연주에서는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 온 땅이 물에 잠겨 있던 동안에는 낮은 언덕(丘陵)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평지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다. 토양은 검고 비옥하여서 풀이 무성했고 나무도 길게 자랐지만, 지형적인 특성상 낮고 습하여 물이 번지거나 넘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땅은 넓은 편이었지만 정해진 土質의 등급은 낮은 등급인 여섯 번째 中下였고,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등급은 가장 최하인 下下였다. 1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연주에서는 공물로 옷나무(漆)와 비단(絲)을, 폐백(幣帛)²¹⁾의 종류를 담은 바구니/대광주리(筐)에는 무늬가 있는 비단이나綾織(錦綺)의 종류인 織文을 담았다. 이 물건들은 제수와 탐수의 수로를 따라 내려가서는 황하를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음 지역인 청주의 토질은 하얗고 비옥한 편으로, 토질의 등급은 세 번째인 上下였고, 그곳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賦)의 등급은 네 번째인 中上이었다. 이 지역의 동쪽은 바다와 접해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넓게 개펄이 펼쳐져 있었다. 공물로 소금(鹽), 가는 침베(紵), 해산물들을 섞은 것(海物惟錯), 대산(岱山)의 계곡(岱畎)에서 나는 생사(絲), 수삼(象), 납(鉛), 소나무(松), 괴석(怪石)을 바쳤고, 목축을 하기도 했던 萊夷 지역에서는 폐백으로 산뽕나무에서 뽑은 생사를 담아서 바쳤다. 이 물건들은 문수(汶水)를 통해 내려가서는 제수로 들어갔고, 다시 물길을 이용해 수도에 도달하는 운송로가 만들어졌다.

21) 幣帛(폐백) : 일반적인 모든 예물 [禮記 禮之先--也, 云云]

<國> 新婦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 때 올리는 대추나 건치(乾雉) 선물하는 물품

청주 다음으로 서주가 있다. 서주의 흙은 붉고 찰진 비옥한 편으로 풀과 나무가 더부룩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토질의 등급은 두 번째인 上中이었으며, 거두어들인 세금(賦)의 등급은 다섯 번째인 中中이었으며, 다섯 색깔의 흙, 우산(羽山) 계곡의 평, 역산(嶧山) 남쪽에서 우뚝 자라던 오동나무, 사수(泗水) 물가에 떠있던 경석(磬石), 회이(淮夷) 지역의 진주조개(蠙)와 물고기(魚)를 공물로 바쳤고 폐백으로는 검은 색으로 된 가는 비단(玄纁縞)을 담아서 바쳤다. 이 물건들은 회수와 사수를 따라 내려가다가 황하로 들어간 후 주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서주 다음 지역인 양주의 토지는 진흙이 대부분이었으며, 가는대(篠)와 왕대(篋)가 넓게 퍼져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풀은 무성했고 나무는 길게 자랐다. 토질의 등급은 가장 마지막인 아홉 번째 下下였고, 거두어들인 세금의 등급은 일곱 번째인 下上이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위 등급의 것과 섞어서 등급을 매기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金 三品(金·銀·銅), 옥(瑤琨), 가는 대와 왕대(篠篋), (동물의) 뼈와 가죽(齒革), (동물의) 깃털(羽毛), 목재(木)를 貢物로 바쳤다. 풀로 된 옷을 입고 지냈던 島夷들은 조개 무늬로 된 비단(織貝)을 짜서 폐백으로 담아 바치기도 했다. 또한 바치라는 명령이 있으면 귤(橘)과 유자(柚)를 석공(錫貢)으로 바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인 물건들은 장강과 바다를 따라 아래로 운반되다가 회수와 사수로 들어갔고, 또 황하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반되었다.

다음 지역인 형주는 많은 지역의 땅이 진흙 성질을 띠고 있었기에 등급에 따르면 매우 낮은 下中이었지만, 지역이 넓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세금(賦)을 거둬들임으로 인해 등급은 세 번째인 上下에 해당되었다. 貢物로 깃(羽), 털(毛), 이/상아(齒), 가죽(革)과 금 세 종류(金三品), 참죽나무(柟)의 줄기, 전나무(栝), 측백나무/잣나무(栢), 거친 솟들

(礪), 고운 숫돌(砥), 화살촉을 만드는 돌(矰), 단사(丹砂/丹沙/丹 : 수으로 이루어진 황화 광물)를 바쳤는데, 특히 이 지역 세 제후의 봉토(三邦)에서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이름난 화살대용 살대(箭籥), 싸리나무(楛)를 貢物로 바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한 제사에 지내는 술을 거르는데 사용하는 부추꽃 띠를 엮은 것(菁茅)들을 정성스럽게 싸서 궤에 담았고, 폐백으로는 흑적색의 비단(玄纁)과 잔구슬(璣)을 땅아서 만든 인끈을 담아 바쳤다. 또한 九江 유역에서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던 大龜를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더라도 반드시 상부로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물건들은 장강, 타수, 잠수, 한수의 수로를 따라 내려간 후 육로를 이용해 낙수(洛水)를 가로질러 南河로 들어간다.

형주에 이어 예주는 토질은 좋은 곳은 고운 편이었지만, 아래쪽은 비옥하지만 푸석푸석한 돌이 많이 섞인 검은 석비레(墟)인 좋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래도 구분한 등급에 따르면 토질은 네 번째인 中上이었고, 거두어들이는 세금(賦)의 등급은 上中으로 때로는 섞어서 내기도 하였다. 공물로는 옷(漆), 모시(棠), 가는 침베(紉), 모시 베(紵)를 바쳤고, 폐백으로는 가늘고 고운 솜(織纈)을 담아 바쳤으며, 명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경석(磬石)을 가는 맷돌(磬錯)을 별도로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거두어진 물건들은 낙수를 따라 내려가다가 황하로 들어간다.

예주에 이어 진행된 양주(梁州)의 토양은 푸르고 검은 색이었는데, 구분한 토질의 등급은 일곱 번째 등급인 下上이었고, 거두어들이는 세금(賦)의 등급은 여덟 번째인 下中이었다. 공물로는 옥경(瑯), 철(鐵), 은(銀), 강철(鏐), 돌화살촉(矰), 경석(磬), 곰(熊) - 큰곰(羆) - 여우(狐) - 삿(狸)의 가죽을 짜서 천으로 만든 것(織皮)을 바쳤다. 이렇게 거두어진 공물은 서경산(西傾山)에서부터 발원한 환수(桓水)가 이 지역에 와서 된 잠수를 따라 내려가다가 면수(沔水)로 들어가고, 다시 내려가 위수(渭水)로 들어가고, 이를 통해 황하를 가로질러 내려가서는

집결지로 옮겨졌다.

마지막으로 옹주 지역의 흙은 누르고 고운 편이었기에 토지의 등급은 첫 번째인 上上이었지만, 땅이 험한 관계로 사람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적어 거두어들인 세금(賦)의 등급은 여섯 번째인 中下였다. 공물로 바친 아름다운 구슬/옥(球琳)과 아름다운 돌(琅玕)은 적석(積石)을 따라 운반되어 용문(龍門), 서하(西河)에서 합쳐지는 위수(渭水), 예수(汭水)를 통해 황하로 들어가서는 주요 집결지에 모인다. 또한 곤륜(崑崙), 석지(析支), 거수(渠擄)가 가죽을 짠 것(織皮)을 바쳤으니, 서융(西戎)도 치수로 인해 얻어진 功의 혜택을 누리며 복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치수의 결과로 만들어진 구주 각 지역 토지와 貢賦의 등급 및 그 내역, 그리고 중심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九州 각 지역 토지와 貢賦의 등급 및 상세 내용, 중심지까지의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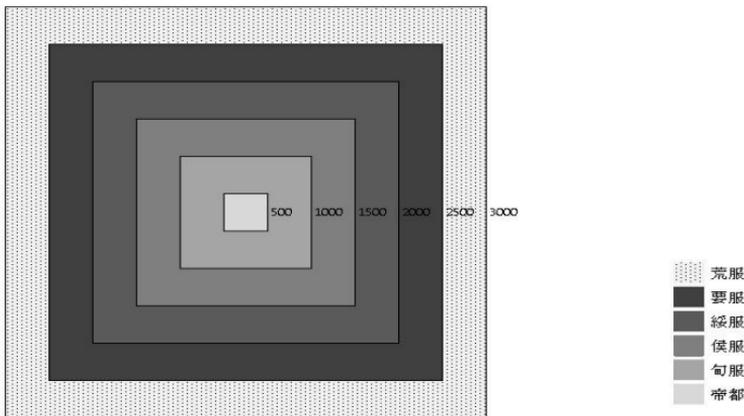
州名	토지의 등급 및 특징	稅의 등급	貢賦	幣帛	帝都까지의 이동경로
冀州	中中	上上	곡식·쌔兵車		黃河를 통한 이동.
兗州	中下 검고 비옥 낮고 습함	下下	옷나무(漆)와 비단(絲)	무늬가 있는 비단·綾織(錦綉)의 종류인 織文	濟水와 溲水→黃河→帝都
青州	上下 하얗고 비옥	中上	소금(鹽)·가는 철베(絀)·해산물 섞은 것(海物椎錯)·대산(岱山)의 계곡(岱畛)에서 나는 생사(絲)·수삼(象)·납(鉛)·소나무(松)·괴석(怪石)	산뽕나무에서 뽑은 생사(萊夷)	汶水→濟水→帝都
徐州	上中 붉고 비옥	中中	다섯 색깔의 흙(土五色)·羽山 계곡의 핑·嶧山 남쪽에서 우뚝 자라던 오동나무·泗水 물가에 떠있던 磬石·淮夷의 진주 구슬(蠃)과 물고기(魚)	검은색으로 된 가는 비단(玄織綉)	淮水와 泗水→黃河

揚州	下中 진흙토	下上	金 三品(金·銀·銅)·옥(瑤琨)·가는 대와 왕대(篠簜)·(동물의) 뼈와 가죽(齒革)·(동물의) 깃털(羽毛)·나무(木)	조개 무늬 비단(織貝(島夷) 錫貢으로 굴(楸)과 유자(柚)	(長江과 海 → 淮水와 泗水 → 黃河 → 帝都
荊州	下中 진흙토	上下	깃(羽)·털(毛)·이·상아(齒)·가죽(革)·금 세 종류(金三品)·참죽나무(柶)의 줄기·전나무(栝)·측백나무/잣나무(栢)·거친 솥돌(礪)·고운 솥돌(砥)·돌 화살촉(箭)·단사(丹砂/丹沙/丹) : 수은으로 이루어진 황화 광물)·화살대용 살대(箭籥) · 싸리나무(栝)	흑적색의 비단(玄纁)과 잔구슬(璣)을 땅아서 만든 인끈(九江서 잡은 大龜	江·타수(沱水)·잠수(潛水)·한수(漢水)→육로를 이용한 낙수(洛水) 가로지르기 → 南河 → 帝都
豫州	中上	上中	옷(漆)·옷(모시)·가는 침베(紵·모시 베(紵))	가늘고 고운 솜(織織) 錫貢으로磬石	낙수(洛水)→黃河 → 帝都
梁州	下上	下中	옥경(璆)·철(鐵)·은(銀)·강철(鏑)·돌 화살촉(箭)·경석(磬)·곰(熊) - 큰곰(羆) - 여우(狐) - 삿(狸)의 가죽을 짠 것(織皮)		潛水 → 먼수(沔水) → 위수(渭水) → 黃河 → 帝都
雍州	上上	中下	아름다운 구슬/옥(球琳)과 아름다운 돌(琅玕)		積石 → 龍門·西河 → 渭水·泗水 → 黃河 → 帝都

<표 3>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듯이 구주에 대한 토지등급과 더불어 세금부과 체계, 중앙에 공물로 바칠 주요 특산품과 교통로 등이 상세히 정비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리는 天의 지원과 감독, 치수 실무 책임자들의 협력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V. 五服制度

치수사업을 통한 구주의 개편과 각 지역에 대한 세제와 전제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통치자들은 지역별 산출물 관리와 부세 방법을 정하였다. 토지를 비옥함과 척박한 정도에 따라 上 - 中 - 下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으로써 부세를 정하여 거둬들이는 방법을 정하였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각 지역에 땅과 성을 하사받은 관리자들을 보내서 특산물과 부세를 거두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심지(帝都)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오복제도(五服制度)를 만들었다. 오복은 임금이 직접 다스리는 기내(畿內) 구역을 중심으로 500리씩의 구간을 정하여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을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구간 구분으로 중심지와의 접근성과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납부 품목을 결정하였다. 다음의 <그림 4>는 오복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五服制度

전북은 기주 바깥 사방 500리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康熙字典》에서 ‘甸’은 천자가 다스리는 500리에 달하는 땅, 기내(畿內)의 구역이라고 했는데, 모두 토지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田賦)를 담당했던 연고로 전북이라 했다. 전북 이내에서도 거리에 따라 내야하는 조세에 차이를 두었다. 1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總을, 100리 바깥으로부터 2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銓을, 200리에서 3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秬을, 300리에서 4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粟을, 400리에서 마지막 5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米를 내도록 하였다.

벼가 뿌리까지 온전한 것을 일러 총(總)이라 하고, 벼를 자르는데 쓰는 도구를 질(銓)이라 했는데, 이를 곡식이라 할 때에는 반으로 자른 벼짚을 뜻했다. 반으로 자른 벼짚의 곁껍질을 없애고 추려낸 것을 갈(秸)이라 했다. 300리 이내까지의 지역은 王城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므로 總, 銓, 秬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운송하는 노동까지도 담당했기 때문에 ‘服’이라는 글자가 덧붙여진 것이다. 속(粟)은 곡(穀), 즉 껍질을 까지 않은 낱알이다. 왕성에서부터 100리까지의 지역이 가장 가까웠던 연고로 뿌리까지 있는 벼 전체를 세금으로 거두었고, 그 다음의 1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반으로 자른 벼짚을 세금으로 바쳤으며, 그 다음 1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벼짚의 거친 곁껍질을 없애고 추려낸 것만을 바쳤고, 그 다음 100리까지의 지역에서는 이삭을 제거한 곡식만을, 그리고 가장 먼 지역에서는 단단한 껍질을 제거한 쌀(米)만을 세금으로 바쳤다. 지역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고려하여 세금으로 바치는 물건의 무겁고 가벼움 및 정밀한 것과 조잡한 것에 차이를 두었다.

전북 바깥으로 500리까지의 지역을 후복이라 했다. 후복 이내에서도 100리까지의 지역은 경대부(卿大夫)의 읍지(邑地)인 채(采), 100리 바깥에서 300리까지의 지역은 남작(男爵)의 소국(小國)인 남방(南邦), 300리

에서부터 500리까지의 지역은 제후(諸侯)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후복 바깥으로 500리 구간을 수복이라 했다. 수복은 안쪽으로는 王城으로부터 1,000리, 바깥으로 또 1,000리까지인 영역의 가운데에 있으므로 안으로 300리까지는 살피 다스리기를 문교(文教)로써 하였고, 바깥으로 200리에 이르는 지역에는 힘쓰기를 무위(武衛)로 하였다. 이렇게 文으로 다스리기를 안쪽에 하고, 武로 다스리기를 바깥에 한 것은 聖인이 華夏로 구분하여 엄격한 차이를 두었던 것과 같다.

수복 바깥으로 500리까지의 지역을 요복이라 하였다. 여기서부터는 모두 王畿로부터의 거리가 제법 멀고 모두 夷狄의 영역이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그에 관한 글과 관련법이 간략하였다. 요복이라고 한 것은 要約에 따라서 얽어매고 구속했다는 것이다. 요복 내에서도 300리까지는 이(夷), 300리로부터 500리까지는 채(蔡)로 구분하였는데, 채는 죄인을 귀양 보내던 곳이기도 하다.

요복 바깥으로 500리의 지역은 넓고 황량한 들판이 있었기에 황복이라 하였다. 300리까지는 만(蠻)이라 하고, 300리로부터 500리까지는 류(流)라 하였다. 류는 채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추방하는 곳이었지만 죄의 輕重에 따라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추방되는 곳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오복을 통해 동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고비사막(流沙)까지,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四海의 곳곳까지 임금의 德이 미치게 되었다. 오복제도와 기본적인 관료體制의 마련은 원활한 통치를 위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었다. 이 오복제도는 주나라 때에는 9복제도로 확대되면서 천하의 봉건체계의 기본이 된다.

치수사업의 성공적 완료로 天으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우는 구주 지역의 일부인 하(夏)의 주(主)로 임명되었다. 또한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인물들도 역할에 따라 계(契)를 사도(司徒)로²²⁾, 후직(后稷)을 農耕을 담당하는 관원에²³⁾, 백이(伯夷)를 질종(秩

宗)으로²⁴), 기(夔)를 전악(典樂)으로²⁵), 용(龍)을 납언(納言)으로²⁶), 수(夔)를 공공(共工)²⁷), 고요(皐陶)를 사(士)²⁸로 임명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리사업과 천하 행정 구역을 구주로 개편, 그 구주 지역에 대한 토지등급제와 세제제도 마련, 봉건제의 기본인 오복제도는 이러한 치수사업의 결과물이다. 단순 물관리가 아닌 천하에 경제적, 생활적, 통치적 기반마련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의 치수에 대한 바른 정의와 내용이 정립되었다.

VI. 結論

고조선 건국 초기에 해당하는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천명에 의해 천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치수사업의 시작은 홍수로 인한 피해의 수습이었다. 치수에 대한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으로 ‘治’에 대해 ‘다스리다 또는 관리하다’라는 의미와 ‘水’가 가지고 있는 ‘물’이

22) 백성들에게 仁義禮智信의 五品을 익숙해지도록 품성 · 풍속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3) 때에 알맞게 씨를 뿌리고, 百穀을 기르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4) 밤낮으로 사막 바르게 하고 고요한 태도를 유지하며 三禮(祭天·祭地·宗廟之禮)와 사당을 맡아 담당하게 하였다.

25) 어린 아이들(雉子/胄子)의 교육을 담당하여 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공손하며, 강직하되 성의를 경시하지 말고 거만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6) 왕의 명령을 전하되 신의를 중시하여 거짓을 꾸며 남을 헐뜯고 혼란을 일으켜 남을 속임으로써 백성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7) 기술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8)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등 형벌을 주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라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치수는 물 관리라는 단편적인 의미로 오랫동안 보편화되어 왔다. 하지만 2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치수의 내용과 실무책임자 선정 과정, 책임자들의 치수에 임하는 자세와 행동, 치수의 과정과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물관리 사업이 아닌 경제적 기반 마련과 천하통치를 위한 체계적인 국책사업임을 알 수 있다.

실무책임자인 우가 행한 사업의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범람이 예상되는 곳에 제방을 쌓아 피해를 막았으며, 하천의 흐름상황과 주변의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에 최대한 인공의 힘을 가하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여 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의 형세에 따라 물골을 터서 여러 하천이 四海로 흐르게 하고, 농경지 주위의 도랑의 물도 원활히 흐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중심지역의 하천과 주변 지역의 하천이 서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치수사업의 영역에 대하여 주요 산과 대규모의 하천을 기준으로 하여 영역을 구분하여 9주로 하였는데, 기주(冀州), 연주(兗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이다. 각 주에 대하여 하천을 정리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농경이나 목축 또는 양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색깔을 비교하여 등급을 9등급으로 하여 토지를 등급화 하였다. 이것은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각 주의 특색에 맞는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물건들은 정리된 수로 및 육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통치의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교통 운송로가 만들어졌다.

치수사업을 통해 경제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조세의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졌다. 각 주의 인구의 밀도를 파악하고 전체 생산량 가운

데 해당 주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토지등급과 같은 9등급의 세금부과 제도를 만들고 세금과 특산물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 기준에는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거두어들이는 곡물의 무게와 운반을 위한 필요 노역 부담을 차별화 하였다.

천하 통치 및 관리의 정책으로 9주의 지역을 중심지를 기준으로 사방 500리의 구간 단위로 지역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오복제도가 만들어졌다. 치정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관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결국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천하 행정구역 개편과 관리제도 도입, 사람들이 생활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시에 통치자들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발휘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치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볼 때 이것은 천명에 의해 천하의 수해를 수습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터전 마련과 경제적 활용, 주요 조세 확보처 마련, 천하 통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국책사업으로 정리된다. 이후 이 사업의 결과물과 주요 제도는 하·은·주 삼대(三代)로 이어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치수사업은 고대국가 형성 초기의 동아시아의 사회 및 시대적 상황, 제도, 문화 등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를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치수(治水), 구주(九州), 토지등급제(土地等級制), 공부(貢賦)제도, 오복제도(五服制度)

〈참고문헌〉

- 『書經大全卷三 夏書 禹貢』, 明 胡廣等 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史記卷二 夏本紀第二』,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史記卷二十九 河渠書第七』,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前漢書卷二十八上 地理志第八上』,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前漢書卷二十九 溝洫志第九』,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古史卷三 夏本紀』, 宋 蘇轍 撰,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淮南鴻烈解卷三 天文訓』, 漢 高誘 注,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原文及全文檢索版)
-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 張明德, 「城子崖龍山文化遺址的發掘和兩漢濟南城的西遷」, 『濟南職業學院學報』, 第4期, 2005年 8月.
- 張應橋, 「我國史前人類治水的考古學證明」, 『中原文物』, 第3期, 2005年.
- 石明秀, 「先秦兩漢治水實踐及思想探蹟」,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科學版)』, 第23卷 第5期, 2007年 10月.
- 王震中, 「大舜文化與中華早期文明」, 『南方文物』, 第1期, 2011年.
- 蔡鳳書, 「大舜與龍山文化」, 『濟南教育學院學報』, 第6期, 2002年.
- 錢耀鵬, 「堯舜禪讓故事的考古學研究」, 『中原文物』, 第4期, 2002年.
- 周延良, 「絲禹治水神話的文化結構」, 『天津師大學報』, 第6期, 1998年.
- 王炎, 「大禹神話的現代解讀」, 『巴蜀文化』, 第4期, 2010年.
- 王青, 「絲禹治水傳說新探」,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第3期, 2003年 9月.
- 施筱萌, 「絲禹治水神話的結構分析」, 『青年文學家』, 2012年.
- 楊棟, 「禹平水土傳說新解 - 從‘敷土’到‘治水’傳說的演變」, 『古籍整理研究學刊』, 第1期 2012年 1月.
- 劉震, 「‘大禹治水’神話的真相」, 『大科技』, 2007年.; 任玉貴, 「大禹治水 - 歷史與現實的面面觀」, 『中國土族』, 2012年 夏季.
- 吳文祥 · 葛全勝, 「夏朝前夕洪水發生的可能性及大禹治水真相」, 『第四紀研

究』，第25卷 第6期，2005年 11月。

王建軍·張愛民，「『洪水神話』與考古發現的對應試證」，『平頂山師專學報』，第17卷 第3期，2002年 6月。

侯仰軍，「考古發現與大禹治水真相」，『古籍整理研究學刊』，第2期，2008年 3月。

楊偉微，「出土文物與鯀禹治水傳說」，『文物鑑定與鑑賞』，2011-12。

李民，「《禹貢》中的環渤海地區及其物質文明」，『인문학논총』，제14권 1호，2009年 2月。

李亞光，「對大禹治水的再認識」，『社會科學輯刊』總第177期，2008年 第4期。

王暉，「大禹治水方法新探」，『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7卷 第2期，2008年 3月。

王吉懷，「“大禹治水”之“禹會諸侯”考」，『蚌埠學院學報』第1卷 第1期，2012年 2月。

王清，「大禹治水的地理背景」，『中原文物』，第1期，1999年。；楊善群，「大禹治水地域與作用探論」，『學術月刊』，2002年 10月。

孫國江，「大禹治水傳說的歷史地域化演變」，『天中學刊』，第27卷 第4期，2012年 8月。

梁述杰·雷太寶，「大禹在汾河流域治水的歷史考證」，『人民黃河』，第22卷 第12期，2000年 12月。

王純五，「大禹治水的地域，《禹貢》江沱及成都古城址」，『四川文物』，1999年 2月。

唐嘉弘·張建華，「論大禹的有關問題」，『荷澤師專學報』，第3期，1997年。

李岩，「歷史上對大禹形象的認識」，『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8卷 第4期，2010年 7月。

徐建春，「大禹，會稽與夏文化」，『杭州師範學院學報』，第2期，2000年 3月。

劉素娜·陳小妹，「治水的成功與夏王朝的建立」，『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29卷 第2期，2009年 4月。

沈長雲，「論禹治洪水真象兼論夏史研究諸問題」，『學術月刊』，第6期，1994年。

黃正術，「從大禹治水看夏人起源」，『青海社會科學』第5期，2003年。

徐校雄，「大禹治水對社會發展的影響」，『雲夢學刊』，第1期，1997年。

李岩，「大禹治水與中國國家起源」，『學術論壇』，總第249期，2011年 第10期。

賈兵強，「大禹治水精神及其現實意義」，『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社科版)』，第27卷 第4期，2011年 8月。

<Abstract>

Contents of the Chisu project which performed in the early ancient era

Moon, Chiung·Kim, Eunjin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clearly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Chisu project which performed by the direct order from Chen(天) at the East Asia in the early ancient era. The Chisu is generally accepted as a kind of water management or wate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we can understand that the Chisu is composed of many detailed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al and political areas through analytical survey of ancient historical literatures.

According to the Seokyung(書經) and Saki(史記), the Chisu project includes the contents of settlement building such as water resource management,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transportation system, land grading, and tax system. The most typical example of the Chisu is the Nine Provinces(九州) as the result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in the ancient china called Chenha(天下). In order to lay a tax on land, also, they legislated norms for the land grading and tax system. Moreover the Nine Provinces were split into five subordinate sections for governmental control over the people and land more effectively. All of above them were provided from the result of Chisu.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redefine that the Chisu is a large-scale national policy project which

performed in the areas of Chenha by the order from Chen for governmental control.

Right understanding of Chisu, therefore, should be the initial basis of the ancient historical, cultural, or civilization researches.

※Key words : Chisu project, water management project,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tax system, five subordinate sections